

친노에 차이고 지역 정치권에 염증... 새 대안 모색

위기의 새정치민주연합
호남정치 어디로

야권 재편론 확산

4·29 재보선 이후 호남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야권재편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 현대정치사의 한 축을 담당해온 호남정치(호남이 추구해온 가치를 지켜온 정치)가 언제부터인가 소외되고 있는 데 대한 호남 민심의 반발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재보선 패배는 호남의 현 정치권, 특히 제1야당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이자 경고로 해석된다. 야권재편론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기사 4면>

재보선, 제1야당·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
호남과 야권의 미래·시대적 가치 실천하는 정치 세력 갈망

대선·총선, 그리고 재보선 패배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최대 위기에 빠졌다. 호남에서는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패배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호남인들은 대선후보를 포기하는 등 호남정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10년 이상 지지를 보내왔는데도 '패배의 야당'을 만든 친노(친노무현)계 등 현 새정치연합 주도세력에도 아무런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일부 중진 정치인에 대한 실망도 크다. 이같은 시선은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탄생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새천년민주당은 '광주'가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후보를 내

세워 정권재창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당내 친노 세력이 2003년 11월에 개혁국민정당, 한나라당 탈당파와 함께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이 당은 '배신자'라는 비판 속에 출범했지만 '노무현 탄핵' 역풍을 힘으로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친노계가 대북송금특검과 한나라당과 연정 제의 등으로 호남과 개혁세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야권 내에서도 파벌을 형성, 친노의 정권을 일구면서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다. 결국, 총선 이후 모든 재보선에서 패배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사라지고 통합민주당으로 바뀌고 만다.

이 과정에서 친노계는 스스로 '폐족'이라고 말할 만큼 철저히 붕괴됐지만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 폐족을 부활시켰다. 이후 친노세력은 '혁신과 통합'→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이란 통합의 역사 속에서 제1야당의 최대 계파로 떠올랐고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친노는 열린우리당 창당 후 첫 총선 승리 후 자신들이 주도한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치권에는 '친노는 경쟁에서만 이기고 본선에는 진다'는 속설이 있다. 물론 친노만의 잘못이 제1야당의 현 실패를 이끈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당 주류 측에 불어 기득권을 행사해온 일부 486 세력 등 여러 정파도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번 광주 선거 패배는 이 같은 상황에

새로운 대안 세력을 찾는 호남지역 민심이 더해져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관계자는 3일 "이번에 당 지도부가 호남을 소외시킨 데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패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는 "야권의 미래와 진정한 시대의 가치를 제시하는 지도자를,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는 세력을 찾기 위해 호남에서 새로운 대안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기대 박상철 교수는 "친노의 실패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는 점, 그래서 패배에 책임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며 "호남 정치권은 신당을 창당해서 갈지, 아니면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울지 등에 대해 논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북교류에 '훈풍'

광주U대회 대형 이벤트
북한응원단 참가등 기대
전남·함북 '땅끝협력' 탄력

정부가 북한과의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사업을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자치단체와 문화체육계 등 각 분야의 남북 교류·대북지원 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7월 열리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 U대회)의 흥행을 책임질 판문점 성화봉송과 북한응원단 참가 등 대형이벤트의 성사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문화와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남북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해 광주·전남 등 자치단체의 대북 교류 및 지원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인도적 차원으로 어린이 의약품과 식량 지원 등을 준비중이며, 장기계획으로는 식수확보, 자연재해 예방, 나무심기 지원 등을 검토중이다. 시는 또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U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함에 따라 개·폐회식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을 비롯한 판문점 성화 봉송, 북한 응원단 참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도 한반도의 땅끝인 전남과 북한의 땅끝을 관할하는 함경북도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약칭 '땅끝 협력'으로 명명하고 이들 지역의 산모와 불우 아동에게 미역과 쌀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花~ 좋다 무등산 철쭉 3일 오후 봄비가 막 그친 후 등산객들이 무등산 바람재~토끼동 구간에서 화려하게 핀 철쭉을 구경하며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6일 본회의 처리

여야 대표, 합의문 서명

여야는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2·5면>

또 '공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부'를 만들어 오는 8월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국회 규칙으로 정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시

한인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

의가 열리는 6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애초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대로 공무

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부도 구성된다. 사회적기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기부 구성을 의결, 오는 8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권재편 '태풍의 눈' 부상
천정배 의원 인터뷰 ▶3면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역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농사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우리시대, 가족의 얼굴
혈연·부부의 틀 넘어 가족이 변하고 있다
가족과 사랑에 빠진 대중문화

기획
'오월'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싶다
억압 뚫고 살아나 사랑받는 세계의 혁명가요

문화 화제
조태일 시인 기념사업 본격화
치열했던 예술과 삶을 기린다

화가의 작업실
'중이의 물성에 스며든 생의 호흡'
작가 신호운의 종이인체 작품

예행이 만난 이 사람
문화전당 비전포럼에 참가한 스페인 건축가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강렬한 '기본 무대'로 시청자 매혹시킨
순천출신 보컬리스트 강하달림

특별 인터뷰
가정의달, 사랑의달
오늘은 내가 우리집 세프,
쉽고 맛있게 만드는 가정 요리

에향초대석
생태운동가 황대권
'야생초의 곳곳함으로 펼치는
탈핵운동, 그리고 생태적 삶'

남도의 장인들
천년 칠량옹기 자존심 지키며
독짓기 60년, **옹기장 정운석**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와-국내외의 현장을 기다리
군수품 공장에서 예술기지로 변신한
중국 베이징 798예술특구

해외 문화 기획-스페인
마드리드~안달루시아,
정열의 스페인 문화 진수를 만나

아시아 스포츠로드-말레이시아
이반족 전통 지켜가는
툰즈가박물관

유민스토리
"천원식당 할머니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스타 데이트
'식샤를 합시다'의
귀염 먹방
캐릭터 서현진

노경훈의 세계 문화도시 기획
'땡고 피어난 남반구의 파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다비 날아오르는 칼평전지
다비 날아오르는 칼평전지